

# 기재부 “수출 중심 경기회복 조짐”

### 최근 경제동향 1월호 발표... “소비·건설투자 부진 우려”

정부가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을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우려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3개월 연속 '경기회복 조짐'이라고 진단했으나 이달 진단에서는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에 방점이 찍혔다. 작년 12월 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 회복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1% 증가한 578억6000만 달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5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14.5% 증가했다.

11월 경상수지(잠정)는 40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70억 1000만 달러)는 무역수지 흑자에 힘입어 8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수지(-21억3000만 달러)는 여행수지 악화 영향으로 적자폭을 확대했고 소득(본원+이전)수지(-1억5000만 달러)는 직접배당 유입 축소 중간배당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12월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흑자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1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감소했다. 광공업은 3.3% 증가했으나 건설업이 4.1% 서비스업 0.1% 공공행정 0.9% 감소했다.

11월 광공업 생산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늘어나며 전월대비 3.3% 증가했다. 11월 제조업 출하는 전월대비 5.2% 증가, 재고는 전월대비 2.4% 감소, 제조업 출하비율 대비 재고 비율인 '재고율'은 전월대비 8.9%(포인트) 하락한 114.3%를 기록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9%로 전월대비 1.8%p 상승했다.

11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도·소매(-1.0%) 등은 증가했으나, 예술·여가(-3.1%), 협회·단체(-2.0%)는 감소했다.

11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1.5%)·운송장비(-5.7%) 투자가 모두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2.6% 감소했다. 3분기 설비투자(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2.2% 줄었다. 기계류수입 증가, 제조업 평균가동률 상승은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이나, 기계류수입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3.0%)·토목공사(-7.3%) 실적이 줄어들며 전월대비 4.1% 감소했다. 3분기 건설투자(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2.1% 증가했다.

11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0.4%)가 감소했으나, 내구재(2.6%), 및 비내구재(0.6%)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12월 소매판매는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은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및 할인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백화점 매출액은 전월대비 3.9% 증가해 2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 할인점은 2.2% 하락하며 등락을 거듭했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4.2% 증가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75.1%(속보치) 증가했다. 국산 승용

차 내수판매량은 12.0% 감소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9.5로 전월보다 23p 상승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으나 석유류·가공식품·내구재 등공업제품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3.2% 올랐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이 반영되면서 5.4% 하락을 지속했다.

12월 취업자는 280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1.7%로 전년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기재부는 "내외적으로는 IT(정보기술) 업황 개선 기대와 글로벌 회복세 악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지속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소지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고한 물가안정 기반 하에 취약부문 회복세 확산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잠재위험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1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대표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ESG경영 교육과 함께 기업 간 네트워킹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ESG 경영, 알기 쉽게’

### 경진원,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간담회·ESG경영교육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11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하 '지주청사업')에 참여 중인 대표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ESG경영 교육과 함께 기업 간 네트워킹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지주청사업의 변화된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간 소통을 통해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ESG경영연구원 권경수 대표의 '알기 쉬운 ESG경영'이란 주제의 특강도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한 기업의 대표자는 "평소 크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유익

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자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부정수급 사례 예방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주청사업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1인당 1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지주청사업은 도내 기업과 청년들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면서, "도내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접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농어촌공, 빠른 실무능력·적응 위한 신입사원 입문 OJT 교육 실시

### 개인의 역량·열정 유감없이 펼칠 수 있도록 최선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2024년 신입사원 25명을 대상으로 입문 OJT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입사원들의 빠른 실무능력과 빠른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 해외농업, 농촌공간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개발, 농지은행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홍보관 방문을 시작으로 삼진

제, 순창읍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견학했다.

이정문 본부장은 "신입사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청렴, 안전, 신뢰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소중히 하며, 미래농업을 주도할 올바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22일부터 인제개발원에서 행정, 토목, 전기, 기계 등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종합적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직계별로 합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2024년 신입사원 25명을 대상으로 입문 OJT 교육을 실시했다.

##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작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편의를 위해 4대 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4대 사회보험 전자증명서는 사업장 또는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이 해당된다. 해당 증명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한 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조회·열람·보관할 수 있고,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

다. 김경화 연금공단 이사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민이 비대면·무방문으로 4대 사회보험 증명서 발급과 제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춰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익산부송 데시앙 사업 추진 문제없어”

### 전북개발공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익산부송데시앙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주체(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가 "전라북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안정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익산부송 데시앙의 적기 준공과 정상 입주

를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 익산부송4지구 B블록 공공주택(부송 데시앙) 건설에 차질 없도록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 부송 데시앙 공공주택은 74세대 규모로, 익산부송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태영건설 외 5개사가 공동으로 건립중이며, 현재 지하주차장 및 주거동 지하 골조공사 진행중이고, 공정률은 20%로, "25년 하반기 공사준공 및 입주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우리 공사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지고 사업을 준공 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